

PA-073

향미 ‘십리향’의 온탕소독 처리시간 및 냉수침지에 따른 발아율 조사

강영호^{1*}, 이덕렬¹, 양진호¹, 조대호¹, 김희준¹

Yeong Ho Kang^{1*}, Deok Ryeol Lee¹, Jin Ho Yang¹, Dae Ho Jo¹, Hee Jun Kim¹

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¹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Services, Iksan, 54591, Korea.

[서론]

향미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향미인 ‘십리향’은 일반미와 같이 밥쌀용이며 현재 전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십리향’의 안전한 재배를 위하여 온탕소독 처리시간 및 발아율 향상 방법을 구명하여 영농현장에 보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2019년도에 생산된 십리향 종자로 62°C 온탕에서 처리시간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및 무처리를 두어 배양기(HB-302S-4, KTENG Co.)를 이용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온탕소독 처리 이후에 냉수침지(18°C, 24hr)의 여부에 따른 종자소독(32°C, 48hr) 후 발아율을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9년에 생산된 십리향 종자의 발아율은 90.6%였으며, 85.0% 이상 발아하기 위해서는 72hr이 필요하였다. 온탕소독 처리 시간에 따른 발아율은 6분에서 90.0%였으며,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아율은 7분 86.0%, 8분 67.3%, 9분 66.7%, 10분 60.0%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무처리 대비 90.0% 이상 발아율을 나타내는 온탕처리 시간은 7분까지로 확인되었다. 종자 온탕소독 이후 침지 여부에 따른 소독 후 종자 발아율은 미침지 시 68.0%, 침지 시 85.3%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육묘를 위해서는 파종 시 발아율이 85.0% 이상 되어야 함에 따라 십리향은 소독 전에 침지를 24hr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자체 개발 벼 품종 현장적용 기술연구’ 사업(사업번호: LP00424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82-63-290-6073, E-mail. dudgh0414@korea.kr